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주인공에 맡겨 놓으세요

☞ 19면에서 계속

아버지가 돼 줄 때가 있고 또 친구가 돼 줄 수 있고 때로는 남편이 되고 때로는 동생도 돼 봐라 이거야. 그러면 화목한 회전이 돼서 우리가 참, 단란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 불법은, 불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고, 일체 모두 생명을 말하고 법이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불교나 불법이나. 그건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좋은 말씀을. 그냥 말해서 떨어지는 거는 한데 떨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니 불교라고 하면 가톨릭교나 기독교나 전부 그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건 진리니까. 불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 없고 마음 낼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게 불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생활이에요. 여러분 몸뚱이가 화두요, 생활이 참선이요,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전부 참선이자 진리자 생활입니다.

그러니 둘로 보지 마세요. 법당에 들어오면 벌써 저 부처님하고 내 형성된 이 몸뚱이하고 둘이 아니요, 그 부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둘이 아니요, 그 도리를 알게 되면, 둘이 아닌 도리를 알게 되면 저런 이파리하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나라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저런 이파리 하나가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저 이파리 생명체, 저 이파리 하나하나가 다 군사가 돼서 나라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싸움터에 나가서 싸우고 호국불교를 한다고 몸뚱이가 나가서 했지만 지금 시대는 그렇질 않습니다. 앉아서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조절해야 싸움을 이기든지 말든지 하지 않습니까? 장사를 해도 그래요. 직원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그리고 조절할 줄 알아야 그 회사를 잘 운영해 나가지. 나라뿐만 아니에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사회도 다 그렇죠. 상업을 해도 그렇고 공업을 해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죠. 무역을 해도 그렇고 말입니다. 그것도 상업이니까. 정치를 해도 그렇습니다. 그럼 국방부에서 군인들을, 육해공을 다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천이 없는 것을 거짓으로 그냥 말만 해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주, 그 뭐라고 말할까요? 진심으로 내가 나를 발견하는 데 역점을 진실히 두십시오. 그럼 내가 말한 이 외의 것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광대무변한 거난 처음 봤어. 이 허공에도 생명들이 이렇게 우글거리는구나. 아하,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렇게 그냥 못 뜨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지리 혈맥도 알게 되고. 우리가 지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진짜 지리학을 써 놓질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지리학이라기보다도 이 지리 혈맥, 모든 청룡 황룡 백호, 이 전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도리를, 나를 발견하십시오. '나'라 그런다고 또 '나를'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이 나입니다. '나' 하면 벌써 일체 한마음입니다. 그러니 이 벽을 치면 봇장이 울려야지. 나를 따르라 그랬지 '나' 한다고 나를 믿으라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같이 한 나지, 어째서 개별적인 나입니까? 그러니 기독교든 가톨릭교든 불교든 둘이 아닙니다. 지금 지구라는 것이 항아리라면 항아리 속에 같이 살면서 웬 말이 그렇게 많고 그렇습니까? 항아리 속에 같이 우글우글하면서 아니, 내 집 네 집 찾을 게 뭐 있습니까, 한 항아리 속에서.

난 그게 딱하다 이겁니다, 모두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도리를 몰라 가지고야 어찌 지구 바깥을 나가서 우주의 섭리를 다 터득하겠습니까? 아무리 권력자고 아무리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어차피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주인공한테 맡겨 놔.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그렇게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맡겨 놓는 반면에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와요. 저승길에 들어가야 저승 이치를 알지 어떻게 압니까? 안 그렇습니까? 허허허.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저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너를 버려라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저승에 들어가기는커녕 살았다고 바둥바둥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둥바둥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니까 저승에 들어갈 수가 없죠.

예전에 어느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 길을 걷다 보면 그게 낮이 되면은 뜨근뜨근합니다. 그래서 밤에도 뜨근뜨근합니다. 거기 드러누워서 밤에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세금을 달랍니까, 누가 자리를 달랍니까? 가랍니까, 오랍니까? 말이 없단 말이야. 얼마나 편안합니까, 조용하고. 하늘을 쳐다보니 별이 총총하고. 근데 그 총총한 별이 나란 말입니다. 나와 둘이 아니요, 이 세상이 다 나와 둘이 아니요, 내가 발 없는 발이 수없이 두루 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거고 또 손 없는 손이 두루 내 손이니 얼마나 거룩하고 좋습니까? 그러니 아주 몸뚱이가 없어지는지 있어지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야, 얼마나 좋았던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맡겨 놓는 반면에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와요.
저승 길에 들어가야 저승의 이치를 알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승으로 들어가기 위해 너를 버려라 이랬거든요.
그렇게 바둥바둥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니까 저승엘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랬는데 아, 그러고 가니까 길 없는 길을 내 자성이 나를 가르치는데 아, 가다 보니까, '야! 이 길은 길이 아니야.' '어떤 것이 길인데요?' '저기 저게 길이지.' 하고 저기를 가리키는데 거기는 천야만야한 산이라. 거길 가리키는 거야. '좋아! 내가 일단 나를 버린 이상에야.' 미련퉁이지, 얼마나 미련스럽습니까? 그 산을 그냥, 그냥 드어잡아 선 거야. 밤이나 낮이나 허, 발도 옮기지를 못해요, 그믐밤에는. 나무가 그냥 참참 쌓이고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나를 인도하느냐 하면 산비둘기, 낭떠러지가 있으면 벌써 그냥 모두가 울어 주는 거야. 햐, 여기 낭떠러지라고 말이야. 그러면은 낭떠러진 줄 알고 주춤하고 섰으면 틀림없어. 뱀이나 비둘기나 새나 전부 친구들이야, 모두가. 그거를 실천적으로 내가 알았을 때 야 참, 이 무르팍을 쳤다니까. '이렇게 공감이 될 수가 없구나. 내가 말로만, 이 뜻으로만 안 거하고 실천을 이렇게 해 놓은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다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때서부터 뭐든, 지나가는 소의 눈만 봐도 눈물이 글썽글썽해져요. 왜? 그것이 내가 아닌 게 없기 때문이야. 죽으러 가면서 그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단 말이야. "응, 너 아프지 말고 그 몸을 벗어." 그러면 벌써 그 영혼은 나하고 체인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때리니 아나, 죽이니 아나. 우리 마취한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면 그냥 좋게 벗는 거지, 뭐.

콩깍지도 익은 거는 건드리기만 해도 싹 벗겨지고 익지 않은 거는 벗기면 그 살이 그냥 콩에 짝짝 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픕니까? 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 도리를 알면 아프지 않고 내가 삶의 보람을 가지고 살다가, 왜, 옷이 그렇게 헤지지 않았어도 부자는 좀 벗어서 놓지요, 가난한 사람은 그냥 다 헤지도록 입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좀 더 부유하게 마음을 넓게, 물리가 터지게, 지혜가 있게 이렇게 이 마음의 공부를 하시기를 참 바랍니다. 그리고 요다음에 또 만나면 실천에 좀 옮겨서 '아, 내가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얘기 좀 들려주십시오. 꼭 그러기를 믿습니다.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덜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남편이 일을 하다가도 집에서 뭐 급한 일이 있으면 벌써 무슨 일이 있나 하고선 전화를 하면 영락없죠. 그런 것도 그렇고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여보, 빨리 들어와.' 하면 그냥 거기서 벌써 '아,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 같은데.' 이럭하곤 빨리 들어오고 그러니 그것이 바로 통신이라, 무전통신. 자력의 무전통신기. 그렇기 때문에 그 엄마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닥쳐도 눈 하나 깜짝거리지 마세요. 다 거기다 맡기고 '네가, 모든 것을 당신이 하시는 건데….' 그러고 딱 맡기고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몰라요? 예? 얼마나 좋은 법인데 이 부처님이 가르쳐 준 팔만 사천 법문을 책에서만, 금강경을 달달달달 외우면 우리 집안이 좋아질 텐데, 아픈 것도 나을 텐데 이러고 외우지 마시고 전체 이걸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시면 끼리끼리들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병원엔 아픈 사람만 모이고, 허허허. (대중 웃음) 아, 생각해 보세요. 한번 휘이 둘러보세요, 안 그런가. 사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끼리끼리…. (녹음 안됨)

집을 하나 지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금방 설계가 나왔어. 이게 과학이 아닙니까? 그래 설계가 나오니까 또 집이 턱 섰어. 이게 과학이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밥을 턱 갖다 놨는데 아니, 이게 과학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은 신비한 걸 모르고 살아요, 진짜 신비한 거를. 그리고 공기가 있어서 내가 사는 거를, 그 신비한 걸 몰라요. 우리가 물이 없어도 못 살고 하여튼 지수화풍이 없으면 못 살아요. 내 몸도 지수화풍이기 때문에 지수화풍 없이는 못 살아요. 전부가 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기를 사서 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물을 사서 쓴다, 바람을 사서 쓴다, 또는 불을 우리가 사서 쓴다, 일일이 이렇게 사서 쓴다면, 다른 것은 다 사서 써도 좋지만 이 공기만은 사서 쓴다면 정말 난리 납니다. 허허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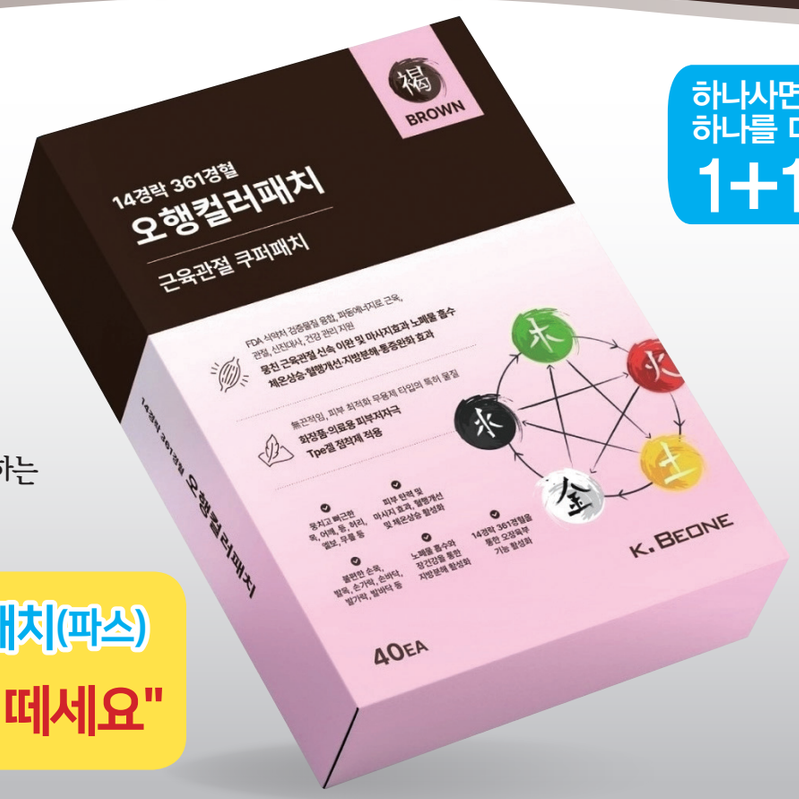
그러니 여러분이 요가를 한다 뭐를 한다 하는 그것도 도(道) 안에, 즉, 내 자동적인 심성을 깨달으면 도라고 합니다.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춤출 줄 몰라도 저절로 손이 돌아가면서 몸이 흔들어지면서 춤을 추게 되니 그것도 운동이요, 춤을 추니 남이 볼 때도 좋은 거요, 잘 추면 보기 좋으니 좋은 거요, 웃으니 좋은 거요, 서로 화목해지니 좋은 거요, 전부 좋지 않습니까? 춤뿐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일상생활이 전부 그렇단 말입니다. 손을 하나 이렇게 드는데도 내가 이거 운동하려고 강제로 막 그러면 이게 참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좀 하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몸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힘이 안 들어요, 각자 여러분이. 그러니까 춤출 때도 춤도 스스로서 추어지게끔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모두 여러분 주인공에 다 있습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7년 5월 24일 국외지원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재구매율 1위로 입증한 건강지킴이' 오행컬러패치 2025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 · 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하나사면 하나를 더 1+1

소비자가 ~~₩99,000~~ → 60%할인
₩39,600 총 80매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